

<SW중심사회> 100호 발행에 대한 축하와 당부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국내 최고의 소프트웨어(SW) 정책 연구기관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의 전문잡지인 <SW중심사회>의 발행 100호를 맞이하여 충성스러운 구독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집현전(Think Tank)으로서 우리나라 국가기능화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2014년 기관 설립 이후 <SW중심사회>를 통해 국가 디지털 대전환과 소프트웨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미래 의제와 실천적 정책을 깊은 혜안과 전문 지식으로 정부와 산학연 관계자에게 제공해왔습니다.

제호를 거듭할수록 본 전문잡지는 기술혁신과 기업전략, 글로벌 경쟁, 규제개혁, 산업정책, 국가 통계지표 등 소프트웨어의 전 영역에 대해 거시적 미래상과 미시적 분석을 균형 있게 아우르면서 주제의 외연을 확장하고 내용의 전문성을 심화하면서 지속성장해 왔습니다. 매호마다 숙독하며 기관 경영에 커다란 도움을 받은 한 독자로서, 이 전문잡지를 기획하고, 또 필진으로 참여하며 편집과 발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글로벌 사회는 커다란 위기 상황에서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고령화 사회, 미·중 기술 패권경쟁,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외생적 변화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한 미래는 가히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반도체, 인공지능, 메타버스, 지능형 로봇, 양자 컴퓨팅, 사이버보안 등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진화는 1등만이 생존하는 패권적 글로벌 경쟁질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의 변화 속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 국가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더욱 냉철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앞서 내다보는 밝은 혜안과 깊은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SW중심사회>가 이러한 시대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저를 비롯하여 정책 당국자나 전문가, 생태계 참여자 모두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끝으로 <SW중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닫고 있는 현실을 참여자와 함께 고민하고 실천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현장과의 동반관계를 확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업 대표와 개발자부터 대학원생과 연구기관 전문가에 이르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내는 지면을 기고부터 인터뷰, 설문조사, 토론회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사구시의 미래 모습과 정책 대안은 현실이나 현장에서 출발해야 강한 추진력을 지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현실에서 <SW중심사회>의 시각을 세계 차원으로 더욱 크게 확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하고, 기업 파견 주재원이나 유학생으로부터 각국의 생생한 소프트웨어 동향 청취를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영문 특집호를 통해 우리나라 SW의 미래상과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것 역시 본 전문잡지의 글로벌 시각을 확대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개발에서도 ‘정책성숙단계(Policy Readiness Level)’를 본격 도입하여, 기술개발 현장에서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을 적용하여 개념 창출부터 시제품 개발 그리고 현장적용 및 사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통합 기술 관리체계처럼, 전주기 통합 정책 개발체계를 만들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숫자 100인 백(百)은 온 국민을 이르는 백성(百姓), 갓 태어난 아기가 여러 고비를 넘기고 면역력을 갖추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틀을 갖추었음을 축하하는 잔치가 바로 백일 잔치인, ‘전체’와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또한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義自見), 100일 기도에서와 같이 ‘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SW중심사회> 잡지의 100회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사회의 완성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성장하는 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